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임성관

휴 독서치료연구소

A Survey on the Librarian's Degree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 Focused on the Medical Libraries -

Seong-Gwan Lim

Hue Bibliotherapy Institute, Anyang,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conduct survey on the librarians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provide basic data for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do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57 librarians of 57 medical libraries among the member libraries of the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57 librarians of 57 libraries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librarians in the medical libraries perceive highly of providing bibliotherapy services for the users. [J Korean Med Libr Assoc 2014;41(1):20-32]

Keywords: Medical library, Bibliotherapy, Bibliotherapy service,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은 첫째, 의료 지식의 향상을 위한 연구, 둘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지식의 응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셋째,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중 보건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공중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공중 계몽, 넷째,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로 돌아가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1]. 따라서 의료 기관의 모든 시설 및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상의 목적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의학도서관은 의료진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곳으로, 의사 및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진들에

Received October 15, 2014, Revised November 20, 2014, Accepted December 16,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g-Gwan Lim

Hue Bibliotherapy Institute, 1599-1 Gwanyang-dong, Dongan-gu, Anyang 431-060, Korea

Tel: 82-70-4221-9449, E-mail: harin75@hanmail.net

Copyright © 2014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계는 전문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전체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고객 감동을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넘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감성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병원의 주체인 의료진과 직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먼저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도서관은 1968년에 설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노력으로 점차 전문화 및 세분화가 되고 있는 의학 분야에 걸맞은 적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변을 넓혀 가고 있는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 서비스에도 필요한 분야임을 전제하고,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이용자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의학도서관과 독서치료,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모(母)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보건과학도서관(Health Sciences Library)이라고도 칭하며 병의원, 의학교, 의학연구소 등에 봉사하는 기관이다[2]. 의학도서관은 의학에 관한 주제 분야만을 다루며, 많은 다른 도서관과 장서 구성, 시설, 이용자, 도서관의 형태, 그리고 특정 서비스의 강조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형적인 전문도서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및 도서관홍법’에 따르면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는데, 의학도서관 역시 환자진료와 의학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3].

의학도서관은 임상의학, 간호학, 약학, 기초의학 등 인체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 교육 및 환자치료에 관련된 의학 자료만을 수집, 정리, 축적하여 제공한다. 의학 분야는 정보회전율이 빠르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은 연구와 환자치료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학도서관이 최신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꼭 필요한 정보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게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되어 이용되는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2].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 기관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은 소속 기관이나 이용자의 성격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도서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을 위한 병원도서관, 정부산하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관,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이다[4].

의학도서관은 크게 대학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도서관, 기타의 도서관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등 학위과정을 가진 대학에 소속되어 교수와 학생의 요구에 서비스하는 도서관이다. 병원도서관은 병의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연구소도서관은 연구소 내에 소속된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5].

2. 독서치료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 (책, 문학)’과 ‘therapeia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문학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6].

심리학, 문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등이 포함된 학제 간 학문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독서치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1941년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서는 독서치료를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도서를 이용하고 도서를 읽히는 것(The employment of books and the reading of them in the treatment of nervous disease)’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1961년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는 ‘치료적인 보조물로서 선정된 독서 자료를 의학과 정신치료에서 사용하는 것, 지시받은 독서 자료를 읽어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구체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7].

독서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즉, 1904년 매사추세츠 주(Massachusetts) 웨벌리(Waverly)에 있는 맥리안(McLean) 병원도서관에 독서치료사로 임명된 사서가 독서 자료를 가지고 환자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독서치료의 가치성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서치료가 도서관 업무의 한 분야로서 처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정신치료의 하나로서 과학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37년 정신의학자인 William C. Menninger 박사가 5년간에 걸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로 독서치료가 임상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독서치료는 정신요법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병원도서관 전문 사서

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서치료를 하나의 학(學, Science)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8].

이와 같이 독서치료 분야는 정신과 환자들에게 책을 선정해 주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병원도서관 사서들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미국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1940년대에 크게 증가했고,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련 논문이 400여 편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도서관 사서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독서치료 서비스에 관한 사례 보고나 관련 연구는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

의학도서관에서 사서의 주도 하에 의료진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연구나 보고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로 독서치료의 접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 및 직원들이 겪는 문제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할 것 같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의사로서 무력감과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하루에 여러 명의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그만큼 의사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환자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의사들은 자신이 치료자로서 무능하다고 여길 수가 있다.

의사들이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는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사회 환경의 변화나 의사직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있다[9]. 심리적인 부담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한[10]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은 높은 심리적 부담을 가짐과 동시에 높은 자율성을 가진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Karasek의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의사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적 압박, 환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 자율성 등이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11]. 이것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높은 심리적 부담이 반드시 심한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것은 아닌 반면, 만약 자율성이 제거되면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부담과 과중한 업무량은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9].

의료 전문직의 스트레스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의료 제공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특히 의사 집단은 보건 의료 영역의 핵심적 지위에 있는 사회 집단으로 의사들의 태도와 업무 능력,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13]. 의사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진료의 질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 환자 관계가 악화되고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같은 나쁜 건강 행태를 가지기 쉬워서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들의 건강 관련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14].

(2)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 직접 환자 간호는 물론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으로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15].

특히 23시간 연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간호사의 교대근무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며, 생체리듬의 부적응으로 수면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신경장애를 경험하며 가족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방해 및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인한 갈등과 불만이 깊어지고, 밤 근무는 정상적인 수면양상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수면 부족현상이 누적되어 이로 인한 피로의 증가로 위장관의 장애와 함께 기존 건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16].

이와 같이 간호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직업적 태도를 갖게 되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의욕이 상실되어 마침내는 이직의 결과를 가져오며[17], 이는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 사기 저하, 환자 간호의 양적·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18].

(3)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의 일상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의대생들은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 과중한 학업 양, 수면부족, 그리고 재정적 압박까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고단함은 의과대학의 훈련과정의 한 부분이며,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안정을 위해 응당 참아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19]. 의과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의학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적면하게 되는데,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이 부정적으로 자각될수록 이들의 학업 동기가 저하되어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된다[20]. 더 나아가 이는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의 형성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지어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21].

(4) 직원(병원종사자): 보통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행정직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병원종사자라 불리기도 한다.

병원종사자들은 의료진들을 지원하면서, 때로는 협동을 통하여 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회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갖고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정당한 평가와 보상, 동료나 상하직급에서의 대인관계가 유지될 때 직무만족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종사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요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생리적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과다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에 개인의 건강 문제는 물론 결근, 성과 저하, 불만족 등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려 결국 이직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현재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도움이 필요하다.

4.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분야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른 것에서부터,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출간된 것, 특정 질병을 다룬 것을 두루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경채(2005)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범위가 의료진을 넘어 병원 내부 고객인 교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3]. 더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언급하며, 의학도서관계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목록을 발간하고,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큰 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어서 장귀녀(1985)는 독서요법 관계 문헌들을 통해 그 이론과 시행방법, 특히 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24].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러한 요법의 시행 가능성과 병원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인식 척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병원도서관 45곳과, 그 가운데 원목실이 있는 병원 20곳에 따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한 뒤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병원도서관의 사서들은 도서관학 교과과정에서 독서요법이 다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독서요법의 시행은 서서히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귀녀의 연구는 의학도서관이 아닌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병원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의 접목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면에서 본 연구와의 접목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의학 분야에서 홍을표(2007)는 독서치료가 노인 정신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외국에서 기준에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독서치료가 국내에서 노인의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및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문헌 고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25].

또한 이운우(2005)는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통해 그들을 위한 상황별 목록이 생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자료들을 선정해 제시했다[26]. 그의 연구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분석

조사 대상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인 성별, 연령, 기관 소재지, 사서 자격의 유무 및 종류, 의료 기관 형태, 도서관 유형,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남자는 16명, 여자는 41명이었다.

(2) **연령:**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20대는 7명, 30대는 23명, 40대는 16명, 50대는 10명, 60대는 1명이었다.

(3) **기관 소재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7곳, 경남이 1곳, 경북이 1곳, 전북이 2곳, 충남이 1곳, 제주도가 1곳, 서울이 33곳, 부산이 6곳, 인천이 1곳, 대구가 4곳이었으며,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현황(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자	16	28.1%
	여자	41	71.9%

표 2. 응답자의 연령 현황(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연령	20대	7	12.3%
	30대	23	40.4%
	40대	16	28.1%
	50대	10	17.5%
	60대	1	1.7%

표 3. 응답자의 기관 소재지(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기관 소재지	경기도	7	12.3%
	강원도	1	1.7%
	경상남도	1	1.7%
	경상북도	1	1.7%
	전라남도	0	0%
	전라북도	2	3.5%
	충청남도	1	1.7%
	충청북도	0	0%
	제주도	1	1.7%
	서울특별시	32	56.2%
	부산광역시	6	10.5%
	인천광역시	1	1.7%
	대전광역시	0	0%
	대구광역시	4	7%
	광주광역시	0	0%
	울산광역시	0	0%

표 4. 응답자의 사서 자격 소지 현황(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사서 자격	1급 정사서	15	26.3%
	2급 정사서	41	72%
	준사서	1	1.7%

(4) 사서 자격의 유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은 사서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 자격의 종류로는 사서 자격은 1급 정사서가 15명, 2급 정사서가 41명, 준사서가 1명이었다.

(5)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는 상급종합병원이 17명, 종합병원이 21명, (대학)도서관이 17명, 기타 2명이었다. 반면 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0명이었다.

(6)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유형은 의대도서관이 17명, 의대분관이 3명,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이 13명, 병원도서관 21명, 기타 3명이었다.

(7)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은 1년 미만이 7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7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

표 5.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도서관 유형	상급종합병원	17	29.8%
	종합병원	21	36.9%
	병원	0	0%
	병원급 의료기관	0	0%
	(대학) 도서관	17	29.8%
	기타	2	3.5%

표 6.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도서관 유형	의대도서관	17	29.8%
	의대분관	3	5.25%
	의대 및 병원도서관	13	22.8%
	병원도서관	21	36.9%
	기타	3	5.25%

표 7.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근무 경력	1년 미만	7	12.3%
	1년 이상~3년 미만	7	12.3%
	3년 이상~5년 미만	3	5.25%
	5년 이상~10년 미만	8	14.05%
	10년 이상	32	56.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명, 10년 이상이 32명이었다. 응답자 중에는 29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는 10년 이상 근속을 하고 계신 전문 사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이 수립되고 필요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전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

조사 대상 응답자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치료 인식 유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에 달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2.3%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55명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 반면 실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관에 접목해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타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그렇다면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명,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37명이었다. 여전히 부정 답변이 많지만, 있다는 응답도 20명이나 되는 점으로 봤을 때 설문에 응한 의학도서관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독서치료 관련 서비스를 접목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3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명이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기는 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표 8. 독서치료 인식 유무(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인식 유무	알고 있다	50	87.7%
	모른다	7	12.3%

표 9.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실시 유무	있다	2	3.5%
	없다	55	96.5%

표 10.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있다	20	35.1%
	없다	37	64.9%

(5)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앞의 문항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33명 가운데 13명이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을 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독서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와 '독서치료가 환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비스 대상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6)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24명 가운데 10명이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가 7명,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2명,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라는 응답도 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

표 11.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	필요하다	33	57.9%
	필요하지 않다	24	42.1%

표 12.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N=33)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서치료가 환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6	18.2%
	독서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2	36.4%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39.4%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	6.0%
	기타	0	0%

표 13.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N=24)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10	41.7%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7	29.2%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2	8.3%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2	8.3%
	기타	3	12.5%

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경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3.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도 조사

그렇다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가장 먼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전문가를 확보하는 ‘인력 확보’가 뒤를 이었고, 독서치료 관련 자료 및 외부 전문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 등의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듯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정책을 수립한 뒤 적정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N=57)

변인	구분	N (응답자 수)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책 수립	36	63.1%
	인력 확보	16	28.1%
	예산 지원	5	8.8%
	공간 구성	0	0%
	기타	0	0%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57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요약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론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문에 참여한 의학도서관 사서 중 독서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7%에 달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2.3%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각 사서들마다 인식의 범위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향후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55명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2명은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20명, ‘없다’는 응답이 37명이었다. 이 결과는 설문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학도서관 중

독서치료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향후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4명이었다.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치료가 환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의 순으로 답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비스 대상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의 순으로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경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사서들 중에는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에서 반드시 접목해 실시해야 할 서비스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원인은 사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점과 공간 구성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하다.

2. 제언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따라서 당장 접목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학도서관에서 사서에 의해 독서치료 서비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에는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항목도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입안자들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에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며, 서비스의 시작은 대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위해서도 의학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는 의료진(의사 및 간호사), 의과대학생 및 간호대학생, 그리고 직원(병원종사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정리한 '3.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료를 구비한 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자신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은 돌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우 바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고학력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라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지혜로우면서도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문학작품을 구비해 별도의 서가를 배치한 뒤 목록을 만들어 각 진료과에 배부를 한다. 이 방법은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도서관 방문 시 자신에게 필요한 문학작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가 배치 및 목록 배부와 더불어 의학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독서치료 서비스는 시(詩)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시는 분량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상징(symbol)과 은유(metaphor)라는 기재를 담고 있어 심리적 역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바쁜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르의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매주 한 편의 적정 시를 골라 낭독을 해주는 기회를 갖거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이 주(週)의 시'라는 제목으로 게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 중에서 의학도서관 57개를 대상으로 사서 57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서비스,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사서의 인식

REFERENCES

1. Johnson BC. Services an Intergrated Hospital Library Can and Cannot Provide. ALA Bulletin. 1971;65(9): 1295.
2. Cho CS, Han HY.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 in webpages of the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05; 22(2):87-101.
3. Lee YJ.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ser education model for medical librarie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9.
4. Kim JA, Noh DJ. A study on the analysis of websites contents in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0;21(3):45-56. Korean.
5. Cho HS. Analysis of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and service quality perception of electronic journal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at 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1.

6. Hyness AM, Hyness-Berry M.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 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1994.
7. Kim HH, Seo JS, Kim SH, Kim JS, Kang EJ, Lim YS, et al. Bibliotherapy. second ed. Seoul: Hakjisa; 2004.
8. Tews RM. Progress in Bibliotherapy. Advances in Librarianship. 1970;1:173.
9. Sutherland VJ, Cooper CL. Job stres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general practitioner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new contract. British Medical Journal. 1992;304:1545-1548.
10. Robert A, Karasek J.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79;24(2): 285-308.
11. Linzer M, Gerrity M, Douglas JA, McMurray JE, Williams ES, Konrad TR. Physician stress: results from the physician worklife study. Stress and Health. 2002; 18:37-42.
12. Muldary TW. Burnout and health professional: manifestation and management. Norwalk: Appleton-Century-Crofts; 1983:34-50.
13. Kim JY, Kam S, Kang YS, Cho YK, Lee SW, Jin DG, et. al.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estern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practicing at local clinic.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04;37(1):44-50. Korean.
14. Kang MK. The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 job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medical doctors practicing at private clinics in Gyeongsangnam-Do province [Dissertation]. Gyeongsangnam-Do Provi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tiy; 2006.
15. Grander D, Parzen ZD, Stewart N. The nurse's dilemma: mediating stress in critical care units. Heart & Lung. 1980;9(1):103-106.
16. Khaleque A, Siddique AB.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shift work. In: Atwood. D. A., McCann C.(eds) Proc. Int. Cong Occupational Ergonomics. 1984.
17. Kim CJ, Park JW.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s of nurses to resig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1;21(3):383-395. Korean.
18. Kwon DW, Koh HJ. A study of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related to transfer of duty post of staff nurses in the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3;9(1):141-150. Korean.
19. Park CW.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 students [Master's thesis]. Gwangju: Chosun University; 1998.
20. Ames C.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992; 84(3):261-271.
 21. Guthrie EA, Black D, Shaw CM, Hamilton J, Creed FH, Tomenson B. Embarking upon a medical career: psychological morbidity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1998;29(5):337-341.
 22. Lee HJ.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Segyungsa; 1985.
 23. Kim KC.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in medical library. *Bulletin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05;32(1-2):39-52. Korean.
 24. Jang KN. A study on the adoptability of bibliotherapy as one of the library service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85.
 25. Hong UP.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for the elderly's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Pochon: CHA University; 2007.
 26. Lee UW. Bibliotherapy for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aster's thesis].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5.

<별첨>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현양입니다. 본 설문지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 사서 선생님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알아본 뒤, 논문 작성을 통해 독서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이 끝난 설문지는 이메일 harin75@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30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현양

1.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 조사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3)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소재지는?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경상남도 ④ 경상북도 ⑤ 전라남도 ⑥ 전라북도 ⑦ 충청남도
⑧ 충청북도 ⑨ 제주도 ⑩ 서울특별시 ⑪ 부산광역시 ⑫ 인천광역시 ⑬ 대전광역시 ⑭ 대구광역시
⑮ 광주광역시 ⑯ 울산광역시
- 4) 귀하의 사서 자격증은?
① 1급 정사서 ② 2급 정사서 ③ 준사서 ④ 사서 자격 미소지
- 5) 귀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 ③ 병원 ④ 병원급 의료기관 ⑤ 기타
- 6)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유형은?
① 의대도서관 ② 의대분관 ③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 ④ 병원도서관 ⑤ 기타
- 7) 귀하의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은 약 몇 년입니까? (약 년)

2.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

다음은 귀하의 환자 대상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2)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 다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 5) 4)번의 항목에 '①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독서치료가 환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② 독서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⑤ 기타
- 6) 4)번의 항목에 '②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②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③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④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⑤ 기타

3.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도 조사

- 1)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책 수립(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② 인력 확보(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 전문가 확보)
 ③ 예산 지원(독서치료 관련 자료 구입 및 강사로 지원)
 ④ 공간 구성(도서관 내 독서치료 상담실 구성)
 ⑤ 기타

<부록> 의학도서관 이용자에게 권하는 시 목록

순번	제목	시인	시집
1	나를 위로하는 날	이해인	외딴 마을의 빈 집이 되고 싶다
2	내속의 야생동물	권영준	불의 폭우가 쏟아진다
3	홍터	김혜남	어른으로 산다는 것
4	편지, 여관, 한평생	심재휘	적당히 쓸쓸하게 바람부는
5	청춘	사무엘 올만	청춘
6	찬밥	문정희	양귀비꽃 머리에 꽂고
7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약해지지 마
8	야생화	조병화	시와 삶의 오솔길
9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절대 고독
10	실	윌리엄 스태포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11	선택	정의순	가끔, 막차를 놓치고 싶다
12	사무원	김기택	사무원
13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정윤	홀로서기 시선집
14	방문객	정현종	섬
15	만남	정채봉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16	등	이형기	시 읽기 좋은 날
17	뒤편	천양희	너무 많은 입
18	담쟁이	도종환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19	누수	문숙	단추
20	당신의 아이들은	칼릴 지브란	생일